

"국회의원 특권의식 스스로 반성"



김봉수기자
insman@

유필우 의원 자료공개 눈길

오는 10월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 비판 일색의 '국감자료 보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스스로 먼저 반성하자"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한 국회의원 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인천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유필우(남구갑·사진) 의원이 그 주인공.

유 의원은 27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항 귀빈실 사용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내·국제선 공항에 설치된 귀빈실 이용객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이라며 "문제는 사적인 용무를 보러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귀빈실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김포, 부산 등 전국 6개 공항에 설치된 국내·국제선 귀빈실을 이용객 중 3분의 2 가량이 국회의원이었다. 2004년의 경우 전체 1만2천376명의 귀빈실 이용객 중 국회의원은 8천89명으로 66.97%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1만7천35명 중 58.35%(9천941명), 2006년엔 7월 말 현재 9천881명의 이용객 중 68.17%(6천736명)이 국회의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빈, 사법부·행정부 관계자, 정당대표,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대통령 등 다른 귀빈실 이용 대상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나 자신도 공·사를 가리지 않고 귀빈실을 이용한 적이 있다"며 "공항 귀빈실의 원래 취지가 외국 손님이나 정부 중요 요인들이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사적인 이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봉수기자 (블로그)insman

배너광고



인천일보 인터넷 광고문의
032)452-0162